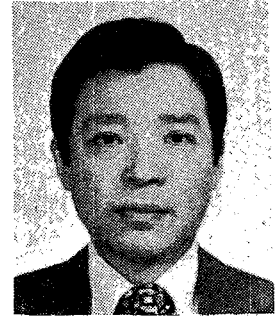




먼 지



金亨徽

〈本協會報 編輯委員〉
〈環境廳 計劃調整局長〉

가을날,
비올롱의 기인 嗚咽은
단조로운 내 마음 괴롭혀,
종소리 울릴 때 가슴은 질리고
창백한 낮빛 서러워, 나는 우노라 ...

낙엽이 우수수 바람을 울리며 鋪道를 딩굴때
가 되면 언제나 생각나는 애수갈린 한 조각의
詩다. 失戀한 女人을 울리는 ...

그러나, 울면서 枯葉을 흠뜨리는 바람은 바쁘
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종종걸음을 치게 하는가
하면, 그 속에서 퍼져 날리는 먼지는 공연히 짜
증을 날리게 한다. 먼지 없는 가을바람이 感傷의
詩心을 불러 일으킨다면, 먼지 많은 가을바람은
짜증과 公害를 불러 일으킨다.

公害로서의 먼지, 이를 일러 環境하는 사람들
은 粉塵, 粒子狀物質이라 하던가?

이를 飛散粉塵·浮遊粉塵·降下粉塵으로 區分
하던가? 環境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먼지(粉塵)
때문에라도 二重으로 골치 아프겠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서울은 연누
런 가스로 덮혀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亞
黃酸가스가 심각하다. 어쩌다 서울을 탈출하여
농촌길을 달리면 車窓으로 스며드는 大氣가 그

렇게 달콤할 수 없다. 참 좋다. 그래서 내가 가
스로 뒤덮인 곳에서 한 해의 대부분을 살고 평
생을 그러면서 生命을 값아먹어야 한다고 생각
하면 더 몸서리쳐 진다”라든지, “비행기에서 내
려다 보는 서울은 灰色과 灰色을 poco a poco
cresc로 연주하는 b 短調의 獨奏인데 시내에
서 바라보는 서울은 黄色과 青色이 Allegro
conbrio로 연주되는 # 長調의 交響樂이다”
라고.

大氣環境問題에 관하여 살펴 본다면 우리는 물
론 先進國들도 대부분 아황산가스 대책에 먼저
심혈을 쏟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1년 7월
부터 首都圈을 위시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와 工
團地域에 종래에는 유황분이 4%나 함유되었던
병커C油 대신에 1.6%를 함유하는 병커C油
를 공급해 나가고 있으며 그 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힘겨운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80년에는 SO₂ 오염도가 0.094ppm이던
서울이 83년에는 0.051ppm 수준으로 개선되
어 대기의 환경기준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먼지는 어떤가? 대기환경기준 항목으
로서의 粉塵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나 基
準值(150 μg/m³以下, 年間平均等)는 83년에
비로소 설정되었다.



그것은 먼지의 大氣環境基準으로의 중요성을 輕視한 것이 아니라, 아황산가스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우리의 환경상황과 먼지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의 혼란, 다시 말하면 먼지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은 먼지도 SO₂ 와 같이 중요시 할 때가 되었다.

먼지오염도를 구태여 들출 필요도 없이 우리의 먼지관리상태 즉 오염상태는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와이셔츠나 구두가 빨리 더럽혀지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두가지 이야기도 사실은 먼지와 가스를 同一視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먼지가 나 타내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실상에 접근된 것이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들 먼지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도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물질을 통털어서 먼지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고 있다.

石綿, 납, 카드뮴, 크롬등의 微細한 粒子와 같이 人體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성분이 그 먼지중에 얼마나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아직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安心하고만 있다면 문제는 갑자기 우리앞에 덮쳐올 수 있다.

우리는 먼지오염을 悲觀的으로만 볼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로서, 일본의 東京은 1971년에 年平均184 $\mu\text{g}/\text{m}^3$ 였다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서울과 88 올림픽개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였던 名古屋도 당시에는 200 $\mu\text{g}/\text{m}^3$ 로서 현재의 서울에 比하여 크게 나을 것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83년에 이르러서는 東京이 56 $\mu\text{g}/\text{m}^3$

名古屋이 40 $\mu\text{g}/\text{m}^3$ 로서 불과 12년 사이에 刮目할 만한 개선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가지를 배우게 된다.

첫째, 먼지는 人間의 일상생활과 直結되는 것이므로 그 除去對策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먼지의 除去는 産業施設의 集塵施設도 중요하지만 바람에 흩날리게 되는 飛散먼지대책이 核心을 이루어야 하며, 그것은 깨끗한 都市를 이룩하려는 市政意志가 좀 더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 시민의 협조가 가장 중대하다는 것이다.

둘째, 먼지의 組成分析에 관심을 가지고 人體에 피해를 가져올 物質의 감측 對策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깨끗한 都市를 이룩하려는 市政意志의 表現은 작은 일에서 부터 가능하며 크게 財政負擔을 招來하지도 않는다. 청소원에 대한 敎育, 空地綠化의 유도, 歩道블터위에 쌓인 흙모래 청소, 市外곽에서의 車輛洗滌義務化등이 日本의 先例다.

市民의 協調는 더욱 작은 일에서부터 가능하다. 내집앞 청소, 물뿌리고 나무가꾸기, 駐車場營業者의 주차장 바닥포장등 모두가 都市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할 좋은 課題들이다.

먼지組成 有害物質에 대한 分析은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꾸준히 협조하여 장기예측을 하면서 단계적 대책을 착실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낙엽을 굴리는 가을바람속에서 흐느끼는 女人을 情感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겠는가? 나아가 불쌍하게 죽은 女人도, 아주 불쌍하게 잊혀진 여인도 다시 불러볼 수 있잖겠는가?

그러면 J도 스치는 바람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